

— Invited Article —

국내 의학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현황과 근거기반 간호학 적용방안

조희숙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교실·대한의학회 정책이사

1. 서론

임상진료지침은 가장 최신의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입증된 근거들을 토대로, 질병의 진단, 치료 및 검사에 대한 절차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자료이다. 임상진료지침의 목적은 진단 및 치료에서의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한 임상적 근거들을 종합하고 임상현장에 접목함으로써 비용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환자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1,2)} 궁극적인 결과로서 임상현장의 진료형태 및 과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진료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최근 임상진료지침은 임상여건의 진료에 대한 길잡이와 병원 내 인력들의 업무매뉴얼 등의 기본적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로써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³⁾

뿐만 아니라, 근거중심의료(Evidence Based Medicine; EBM)의 핵심 방법이 되는 임상진료지침은 전문가집단에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의 두 가지 과제를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이론과 도구로서 인정받으면서 정부에서도 학술 연구 차원에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진료지침이 진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있다.^{4,5)}

그러나 이와같은 움직임은 국외 임상진료지침의 활동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초기 단계로서, 자발적인 관심과 연구자 개인의 독립적인 활동만으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확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임상진료지침은 개발에 있어서의 과학적 방법론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개발 이후에도 질 평가, 보급 확산을 위한 이론과 확산 모형에 기반한 조직화된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동안 의학 분야에서는 임상진료지침 개발 방법론을 체계화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일련의 지속적 노력들을 수행 중에 있으며 보급 확산을 위한 다학제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의학 분야에서 진행된 임상진료 지침의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보급 및 확산, 지침의 질 평가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동안의 경험에 대한 공유를 통하여 근거기반 간호학 발전을 위한 적용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한다.

2. 국내 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현황

국내에 임상진료지침이 새롭게 소개되고 개발의 필요성에 논의들이 시작될 당시에는 의료계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그 동안 의료계는 정부가 근거가 불충분한 기준에 의해 진료비 삭감과 심사기준 마련을 해 왔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 개발되는 임상진료지침이 이러한 규제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반대의 긍정적 입장들도 있었다. 즉, 의료계가 주도하는 합리적이고 근거에 입각한 기준을 개발하고 이와 비교하여 부적절한 기준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진료과별, 기관별 진료형태의 변화가 존재함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점점 자리매김을 하였고 의료계의 지지를 얻었다.

이와같은 움직임은 학회별, 정부 연구기관별 지침 개발의 조직구성과 개발 작업에 대한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최근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개발 연구는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는데 2013년 11월 기준

주요어: 근거기반, 간호학, 임상진료지침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eui-Sug Jo

Department of Health Policy & Management, School of Medicin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Kangwondeahak-gil, Chuncheon 200-701, Korea
Tel.: +82-33-250-8872 Fax: +82-33-255-8809 E-mail: joheuisug@gmail.com

투고일: 2014년 10월 31일 게재확정일: 2014년 11월 20일

으로 115개의 지침이 개발되었다.⁶⁾ 또한, 2013년 대한의학회의 회원 학회 중 133개 학회를 대상으로 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계획 및 진행 중인 지침을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면 2014년 10월 현재까지 173개의 지침이 개발 및 개발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상진료지침 개발의 주체는 다양한데, 가장 많은 경우가 개별 임상분야의 학회를 중심으로 자체적 개발 필요를 공감하여 진행하는 경우이고, 다른 형태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에서 지정하는 임상연구센터 사업 및 임상진료지침개발 사업 공모를 통하여 연구자에게 개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최근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대한의학회를 통하여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주요 질환의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개발된 지침은 대한의학회에서 운영하는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www.guideline.or.kr)를 방문하거나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검색을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다.

3. 대한의학회의 임상진료 개발지원 및 보금을 위한 노력

1) 조직 구성

대한의학회는 의학계를 총괄하는 대표 학술단체로서 회원 학회의 근거기반 의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직화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2006년부터 대한의학회에 임상진료지침 업무를 전담할 정책 이사를 두고 임상진료지침 위원회와 임상진료지침 실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임상진료지침위원회는 26개 전문과목 학회의 임상진료지침 관련 위원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임상진료지침의 학회 간 협력을 통한 개발 사업, 개발된 지침의 학회 간 네트워크를 통한 확산 보급 활동을 추진한다. 한편, 실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임상진료지침 실행위원회를 대한의학회 산하에 두고 있다. 실행위원회에서는 근거 중심의 임상진료지침 관련 전반의 제도 및 방법론을 개발하고 지침의 확산 및 질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06년 대한의학회가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주력 한 반면, 최근에는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회원 학회의 자발적인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구체적인 개발 방법론의 교육 활동을 힘쓰고 있다.

근거기반의학에 대한 회원 학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방법론 지원과 교육 훈련에 대한 요구도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지침개발, 교육 및 자문 기능을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임상진료지침 연구 사업단을 2013년에 신설하였다. 연구 사업단은 질병관리본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침개발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고혈압

및 당뇨병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회원 학회와 다 학제 활동으로 진행하는 한편, 회원 학회의 지침 개발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 기술적 지원 및 교육

대한의학회에서는 회원 학회들이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문, 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평가방법론에 대한 공개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대한의학회 주관 임원아카데미에 진료지침 개발 방법론 교육 세션을 상설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평가방법론 워크숍'을 개최, 진료지침의 개발 및 평가에 필요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의 기회를 마련하여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발 방법론 교육 이외에도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방법론에 대한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위원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임상진료지침 동료 질 평가 인력 양성 교육은 2013년을 시작으로 년 2회 실시되며, 1차와 2차 교육을 통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1차 교육은 '임상진료지침 동료 질평가 방법의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평가방법론을 소개하고 2차 교육은 평가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평가실무를 위한 '웹기반 AGREE II 평가방법'을 소개하고 있다.⁷⁾ 2013년에는 18개의 회원학회, 2014년에는 21개의 회원학회에서 추천받아 교육을 실시하여 2013년 29명이, 2014년 29명의 평가위원이 선정되어, 총 58명의 평가위원이 위촉되었다.

3) 임상진료지침 질 평가 활동

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개발된 지침은 개발 완료 후 지침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평가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임상진료지침 평가는 임상진료지침 사용자에게 개발 과정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공정하게 평가된 신뢰성 있는 임상진료지침 권고안을 제공함으로써 환자 치료 및 관리에 있어서 근거기반의 적절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임상진료지침 개발이 진행되는 것이지만 개발 방법론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개발된 지침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임상진료지침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북미와 유럽 국가 등에서는 표준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개발된 진료지침의 개발과정을 평가하거나 개발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요건들을 제시함으로써 진료지침의 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지침의 평가 주체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국가가 주관하거나 의료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의 현황을 고려할 때 의학분야의 진료지침의 평가에 있어서 의료계가

주축이 되어 전문가에 의한 동료 질 평가가 수행될 때만 평가가 지닌 본래의 의미를 구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⁶⁾

대한의학회에서는 수년간 임상진료지침의 질 평가 기능을 준비하여 왔으며 2013년 4월, 임상진료지침 평가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평가에 대한 일련의 내용과 방법을 정비하였다. 임상진료지침의 평가는 독립성, 객관성, 투명성, 적시성의 원칙을 고수하고자 하였는데 즉, 대한의학회 산하 임상진료지침실행위원회와 임상진료지침 연구 사업단에서 독립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지침을 평가할 전문가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평가위원을 양성하도록 정비하였다. 임상진료지침의 평가 도구인 AGREE II (Appraisal of Guideline for Research & Evaluation) 한국판을 적용하여 수행되는 지침 개발 과정에 대한 방법론 평가이다. 진료지침의 질 평가를 위해 개발된 AGREE는 진료지침 개발에 있어 방법론적인 엄격함과 투명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인정받고 있음. 2009년 신뢰도와 타당도, 근거자료의 질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향상시킨 AGREE II가 개발되어 보급되었다. 국내에는 2011년 AGREE II 한국형 평가척도와 평가의 신뢰도를 향상하게 한 Scoring Guide를 개발하여 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지침의 질 평가 활동은 단순하게 개발된 지침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지침을 처음 개발할 당시부터 완성도 높은 지침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사전적 체크리스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⁸⁾ 그리고 질 평가를 통하여 추천된 임상진료지침을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에 탑재하여 공개함으로써 우수 지침에 대한 사례를 홍보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

4) 임상진료지침 보급 및 활용을 위한 노력

개발된 지침을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보급 확산하기 위한 전략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대한의학회에서는 지침 개발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임상진료지침 활용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웹기반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개발된 지침을 탑재하고 사용자 커뮤니티를 통한 의견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다.

2014년도에 개발 중인 일차의료용 고혈압 및 당뇨병 진료지침의 활용을 높이고자 임상진료지침의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활용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데, 진료지침 개발자, 개발후원자(연구기관, 전문가), 진료지침 이용자(개원의 협의회, 개원내과의사회, 가정의학과 의사회, 일반과의사회)가 함께 참여하였다.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는 웹기반으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웹진 발행: 임상진료지침 관련 교육 및 국내외 event 홍보
- 임상진료지침 신규개발 홍보 및 정보제공

- 임상진료지침 사용자들을 위한 의사소통 채널 구축
- 웹기반 임상진료지침의 동료 질 평가 체계 운영

4. 근거기반 간호학 적용방안

이상에서 국내 의학분야의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현황과 대한의학회의 근거기반의학 발전을 위한 지원 활동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들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시사점을 통해 간호학 분야의 근거기반 지원활동 및 진료지침 개발의 적용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근거기반 간호학 연구 지원활동의 조직화

근거기반의 연구 및 정책 제언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고도의 전문성과 전문가 집단의 공조 체계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간호학 근거기반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 연구자, 관련학회의 연구 및 지침 개발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연구 방법론을 교육 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진료지침을 개발한 경험이나 방법론에 대한 습득 정도는 연구자는 물론이고 학회별로 매우 상이하다. 지침개발 경험이 없는 경우 처음 시도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고 과학적 방법이 부족한 지침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침 개발의 경험과 방법을 공유하고 방법론을 전파 할 수 있는 전문가 지원 활동을 조직화하는 것을 제언한다.

한편, 이해당사자의 참여기전 확보와 의사소통의 활성화 노력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주요 질병들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이 개인 연구자 또는 단일 기관이나 학회를 중심으로 개발된 경우가 많지만 개발된 지침의 완성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많은 학회의 참여와 공조체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 근거기반 간호학 연구의 우선순위 선정

자원의 제한성은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이며 가장 효과적이고 영향력을 지닌 주제에 대한 일차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간호 분야의 근거기반 연구 주제 선정에 있어 국내 보건의료 환경의 특성 및 진료변이의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순위 의사결정과정은 관련 학회를 비롯하여 환자와 보호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는 것이 이상적이다. 의사결정을 위한 기준에는 관련 보건의학 및 간호 분야의 통계(유병률, 사망률, DALY 등의 질병부담), 진료의 변이, 관련학회의 개발 의지, 정부 정책과의 관련성 등 다양한 측면의 기준과 이에 대한 중요도의 가치, 시급성의 문제가 포함된다.

3) 임상진료지침의 보급 확산 활동 병행

임상진료지침 개발이 지식의 합성 과정이라면, 지식의 전달과정 (knowledge translation)의 활동은 더욱 실용적이고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다. 이는 단지 좋은 진료지침을 개발하면 자연스럽게 보급 확산되어 활용될 것이라는 수동적 기대로만으로는 부족하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사용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임상진료지침의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지침의 보급 및 확산에 대한 계획은 지침의 개발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개발 초기부터 함께 기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 개발 자체에만 예산을 배정하기 보다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예산이 배분되어야 한다.

진료지침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자 및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활용협의체 활동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꾸준히 수정보완을 진행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지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 설계가 병행 될 필요가 있다. 즉, 지침의 활용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사체계를 설계하고 개발 이전과 이후의 간호 행태 변화를 조사할 수 있는 평가연구 설계가 이에 해당한다.

REFERENCES

1. Darling G. The impact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nd clinical trials on treatment decisions. *Surgical Oncology* 2002;11:255-62.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Development of quality evaluation system o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nd strategies for dissem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developed guidelines in Korea. 2012.
3.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A guide to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1998. Available at: https://www.nhmrc.gov.au/_files_nhmrc/publications/attachments/cp30.pdf [accessed 29 Oct 2014].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stablishment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development policy. 2007.
5.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A strategy for dissem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Korea. 2013.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Technical assistance on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 management guidelines. 2013.
7.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The 12th academy of board member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2013 Nov 28-29; Gyeonggi, Korea. Seoul: KAMS; 2013.
8. Jo HS. Current Issues and Prospects on development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3;11:51-6.